



신간소식

崔成眞, *National Information Networks for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서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82년 6월刊. 442p. \$ 34. 50(국내가 : 14, 000원)

영문으로 출판된 본서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체제로 고쳐 쓴 것이며 중진국들의 공통적 정보요구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봉사 현황을 분석 논의한다. 조사대상이 된 나라는 한국, 브라질, 콜롬비아, 홍콩, 이란, 이락, 케냐,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대만, 터키, 베네주엘라, 유고슬라비아의 15개국이다. 주로 질문지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수집된 각국의 데이터를 공통적 특성, 요구, 제한조건으로 묶어서 고찰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중진국들을 위한 전국 정보유통망의 일반적 모형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 지원하에 아프리카제국, 라틴아메리카제국, 아랍제국, 남아시아제국 등을 위한 지역별 전국정보유통망 모형이 만들어지고 채택이 권고되었으나 실현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저자는 그러한 지역적 문화의 인접성이 정보봉사 조직에 고려되어야할 결정적 공통요소라는 사실이 잘못 설정된 것임을 지적하고 유사한 국가발전의 수준이야말로 지역적

원근에 상관 없이 유사한 정보요구, 제한조건의 지표임을 입증하려고 한다. 정보학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학생, 비교정보학도, 국제정보학도에게는 필독서.

Boss, Richard W., and Marcum, Deanna B. *The Library Catalog:COM and On-Line Options*. Library Technology Reports (Sept.-Oct. 1980)Chicago: ALA, 1980, p.114 \$40.00 ISSN 0024-2586

늘어나는 자료의 양과 복잡성으로 인해 도서관 각종 업무의 자동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도 대두되고 있는 이즈음 목록 자동화에 관한 이 책은 우리에게도 먼 앞날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추진하고자 한다. 크고 작은 많은 도서관들이 실행을 이미 했거나 실행 단계에 있는 미국 상황으로서는 따라서 LTR series의 이번 주제는 매우 시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survey는 1980년 중반에 실시한 것으로 몇가지 착오와 누락 사항들이 있지만 이 방면에 관련된 정보들을 한 권의 책안에 잘 정리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LTR series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로 일반적인 이론 및 실체에 대해서 뿐 아니라 특정 업자(vendor)와 그들의 제품(products)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이상적인 목록의 특징”, “COM 목록의 문제점”, “On-Line 목록 디자인에 있어서의 몇 가지 요소들” 이 특히 관심이 가는 것들로서 여러 도서관들의 경험을 통해 목록 자동화의 문제점, 경향, 가능성들을 검토해 보고 있다. 서문과 본문을 통털어서 볼 수 있듯이 저자들이 상업용 data base 업자들이나 기타 다른 서지적 시설을 통한 turnkey system에 選好하는 경향이 있는데(서문에서는 turnkey이용의 장점을 나열하여 있음) 단점을 지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또한 “기타 다른 On-Line 목록 계획” 부분에서(Other On-Line Catalog Planning) Ohio State Univ., University of Illinois, Washington Library Network 등에서의 중요한 성공사례를 빠뜨린 것은 유감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COM을 비롯한 전자 처리된 목록에 대한 기술적, 실용적인 면에서의 평가, Vendor 및 기재(utilities)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제공으로 인해 정보 과학 계통의

좋은 新刊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Della Pearman. *No Choice: library services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Library Association, Spring 1982, 60p. 5. 60.

정신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를 다룬 이 책은 우선 “정신장애”란 무엇인지, “정상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장애자를 위해서 도서관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이상적인 봉사는 어떠한 것이며, 정신장애자를 위한 도서관봉사에 따르는 문제점과 실제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이상적인 도서관 봉사는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도서관 봉사가 기존의 자료들을 창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따라서 정신장애자를 위한 봉사 또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그리고 병원 등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강조한다.

책 뒤에는 정신장애를 위한 충분한 참고문헌이 10면 가량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영국문화원 소장도서>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

도서관의 평생교육

전통찾는 문화국민